삶이라는 문제, 가장 실용적인 답은 역사에 있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역사의 쓸모

최태성 지음

"조선의 18대 왕 현종의 실록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예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복을 입는 기간에 대한 논쟁이었던 예송은 현종 재위 기간 내내 지속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350년이 흐른 지금, 예송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백성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잘난 양반끼리 대단한 기 싸움을 벌였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게 그만큼의 에너지를 쏟을 정도로 우선순위에 있는 일인지 말이죠."(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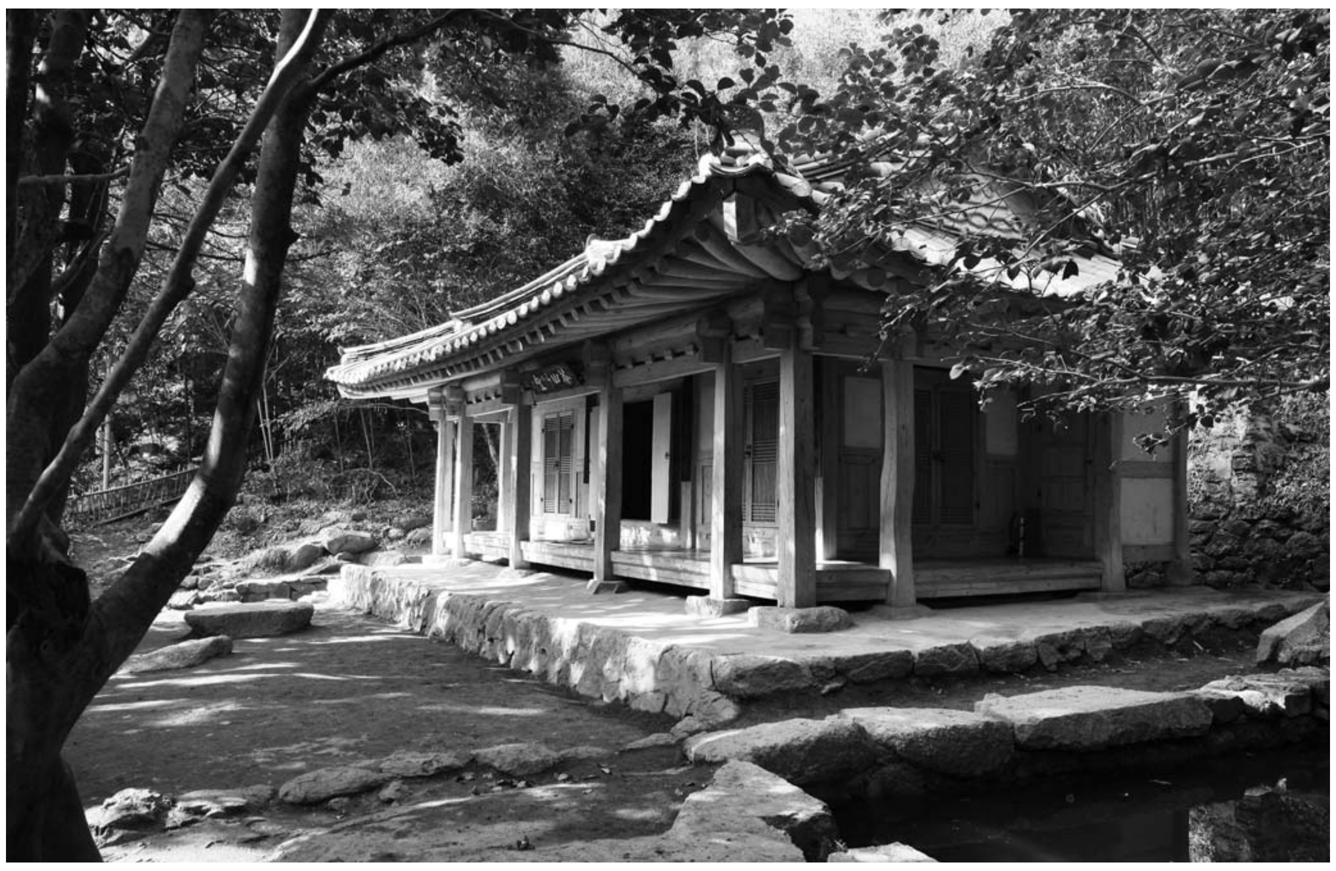
역사란 무엇일까? E.H. 카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다.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라고 했다. 고전적인 역사의 정의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은 사람살이의 본질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정의하는 이가 있다. 그는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역사에서 답을 찾았다"고 했다. 역사 강사이자 KBS '역사적 그날', MBC '무한도전' 등에 출연하며 일반인에게 역사 공부의 재미를 전했던 최태성 작가가 '역사의 쓸모'를 펴냈다.

'자유롭고 떳떳한 삶을 위한 22가지 통찰'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저자는 단편적인 사실에 그치지 않고 역사의 본질과 이면을 파고든다. 누적 수강생 500만 명, 온라인 무료 강의 시대를 연 대표적인 역사 강사답게 각각의 이야기를 편안한 에세이로 풀어낸다.

저자는 선택의 기로에 직면할 때마다 역사에서 답을 찾았다고 한다. 수백 년 전 이야기로 오늘의 고민을 해결하는 단초를 얻었다는 얘기다.

"역사란 무엇보다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입니다. 수 천 년 동안의 사람 이야기가 역사 속에 녹아 있어요. 그중에 가슴 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을 만나 그들의 고민, 선택, 행동의 의미를 짚다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역사의 힘입니다."



정약용은 출세의 길이 막혔다고, 죄인이 되었다고 자포자기하지 않았다. 형조에 기록된 죄인으로 평가받는 것을 거부하고 500여권의 책을 남겨 후세의 평가를 받으려 했다. 강진 다산초당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역사가 당대의 논쟁과 사실만의 기록이 아닌 '쓸모'가 있는 실용적인 얘기라는 의미다. 죄인으로 기억되지 않기 위해 500여권의 책을 집필한 정약용에서부터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생을 바쳐 독립운동을 했던 이회영 등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출신의 한계를 비관하며 절망하는 대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판을 짠 정도전, 기득권 반대에도 백성을 위해 대동법 확대를 주창했던 김육 등의 삶도 만날 수 있다.

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역사가 내게 가르쳐준 것들'이다. '혁신', '성찰', '창조', '협상', '공감', '합리', '소통'을 키워드로 역사 속 절체절명의 순간을 '쓸모 있는' 계기로 만들었던 인물들의 행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약소국인 신라가 삼국통일의 주인공이 된 데는 비주류인 김춘추와 김유신을 등용한 선덕여왕의 선택 때문이었다. 고려가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거란으로부터 얻은 것은 협상의 달인 서희의 지략에서 비롯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종일관 저자는 역사를 공부하면 무엇이 좋은가에 초점을 맞춘다. 일테면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을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과 엮어 세상을 바꾸는 생각의 조건을 알아보고, 몽골제국에 항복하면서도 고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협상한 고려 원종의 사례도 들려준다.

책을 읽고 나면 다른 무엇보다 역사를 대면하는 자세를 어떻게 견지해야 하는지 숙고하게 된다. 오늘의 우리에게 '실용적인 역사 사용법'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일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은 상대가 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헤아려 보는 일입니다.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서로의 시대를, 상황을, 입장을 알게 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달라질 것입니다." 〈다산북스·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소설의 시대 1,2 — 김탁환 지음

"이건 청나라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의 소설이야. 놀랍지 않은가?"

궁궐, 사대부 가문, 세책방을 가리지 않고 소설 애호가들로 넘쳐났던 18세기 대소설(장편소설)의 시대.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했던 조선시대, 여성 작가가 쓰고 여성 독자들이 향유했던 100권, 200권 규모의 대소설은 장편보다 단편이 강세를 보이는 현재 한국 문학 출판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였다.

작가 김탁환이 신작 장편 '대소설의 시대'를 펴냈다. 2003년 '방각본 살인 사건'으로 시작된 백탑파 시리즈는 '열하광인', '열녀문의 비밀', '목격자들'에 이어 '대소설의 시대'를 선보이며 5종 10권에 이르렀다.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거대한 장편의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누가 그 긴 글을 쓰고, 베끼고, 읽었을까. 위로는 혜경궁 홍씨에서부터 아래로는 필사 궁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궁궐, 세도가, 세책방을 가리지 않고 소설을 통해 그들만의 상상력을 은밀하고 끈질기게 펼쳐나갔다.

소설은 조선 최고 이야기꾼 임두가 궁중 여인들을 위해 23년째 대소설 '산해인연록'을 써서 매달 혜경궁 홍씨에게 바치고 있다는 내용을 모티브로 펼친다. '산해인연록'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임두와 그 제자들, 혜경궁 홍씨를 비롯한 몇몇 공주, 필사 궁녀 성덕임밖에 모른다. 그런데 199권까지 잘 써 오던 임두가 5개월째 200권을 쓰고 있지 못하자 궁에서는 김진과 이명방을 호출해 작가의 상황을 알아볼 것을 요구한다.

소설의 목차 제목은 모두 실존하는 대소설들의 제목이다. 목차가 주는 낯섦은 그 자체로 18세기 소설이 얼마나 철저하게 망각됐는지를 보여준다. 방대한 소설을 통해 독자들은 장대한 스케일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민음사·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나무가 되지요 — 문태준 지음

문태준 시인은 한국의 대표 서정 시인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동서문학상, 노작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서정시학문학상, 목월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앞서 열거한 문학상은 우리 나라 시단을 대표하는 문학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상 자체로 문학적 성과를 인정받는다.

문태준 시인이 10년 만에 두 번째 산문집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나무가 되지요'를 출간했다. 일반적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은 일정한 성취를 담보할 수 있는 기간이다. 문 시인은 새로이 변하기보다 더 깊어지는 쪽을 택했다. 시인의 마음밭에 자라난 내밀한 언어들을 세심하게 묶어낸 산문집은 시인의 시선과 언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번 책에는 '삶'이라는 풍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면들이 향기를 품은 채 깃들어 있다. 그의 깊은 속내를 한층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순도 높은 단상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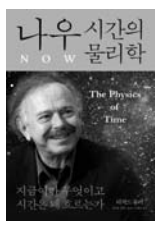
"생각과 문장에는 어떤 면(面)이 있다. 그리운 사람의 하얀 얼굴이 언뜻 생각나는 것처럼. 활동하는 생각을 받아쓴 문장을 이 책의 면에 펼쳐놓는다. 만났던 사람과 불쑥 일어난 일, 매일 시집에서 읽은 한 편의 시, 너라는 거실에서 주고받았던 언어, 격렬함과 슬픔, 두 개의 고독, 서랍에서 꺼낸 옛 시간, 붉은 석류 같은 행복, 악보와 스틸 사진, 미래의 목록 등이 이 책의 면에 올라 있다."

책은 1부 '꽃은 맑게 준비되어 우아함을 내밀었다', 2부 '웃음으로 서로 바라볼 뿐', 3부 '또 다른 내일이 온다', 4부 '나는 문득 그대의 얼굴을 만난다', 5부 '가만히 내 마음 옆에 서서'로 구성돼 있다. 모두 101개의 단상은 읽는 이에게 잔잔한 울림과 생각의 자유를 선사한다.

〈마음의 숲·1만4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우 시간의 물리학 — 리처드 뮬러 지음, 강형구·장종훈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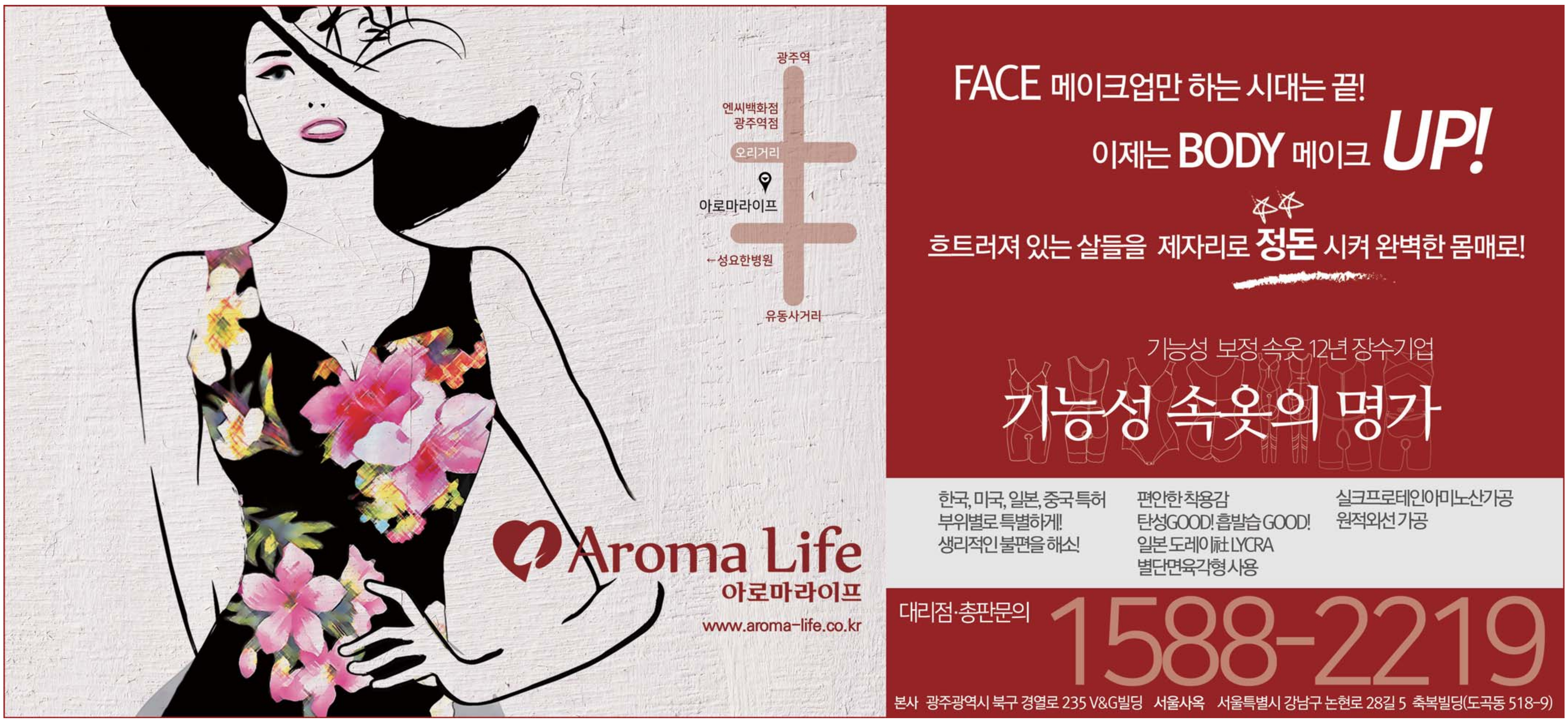
"'지금'이란 무엇인가?" 이는 인류의 가장 오랜 수수께끼 중 하나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만약 누가 나에게 묻지 않는다면 나는 알고 있다. 만약 내가 설명하려고 한다면 나는 모른다"고 말했듯, '지금'이란 수많은 철학자, 성직자, 물리학자들의 연구를 거친 지금도 의미를 정확히 짚기 힘든 개념이다. 아인슈타인조차 '과거·미래와는 다른 특별한 것이나, 그 차이를 물리학 안에서 나타낼 순 없다'며 외면하기도 했다.

실험물리학자 리처드 뮬러가 상대성이론, 열역학, 빅뱅이론, 양자물리학 등을 통해 '지금'의 의미를 파헤친 책 '나우 시간의 물리학'이 출간됐다.

노벨상 수상자 루이스 앨버레즈의 제자로 가속질량분석기 등을 개발했던 저자는 1978년부터 UC 버클리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미 국방부 과학자문단의 활동을 통해 앨런 워터만상, 맥아더 펠로우십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자는 "누구나 지각할 수 있으며 분명히 실재하는 현상을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해선 안 된다"며 20세기 물리학의 진보를 통해 오늘날에야 비로소 '지금'을 설명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강조한다.

책은 총 5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선 시간이 물리학의 세계에 처음으로 산입된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통해 시간의 물리학적 의미를 짚고, 2, 3부에서 각각 '엔트로피 이론'의 맹점, 양자물리학의 불확정성 원리를 분석해 시간의 일방향성을 반박한다. 4, 5부에서 우주가 팽창하며 공간을 만들듯 시간도 계속 팽창하며 새 시간을 만들며, 그 모서리가 '지금'이라는 '우주론적 화살', '4차원 빅뱅' 이론을 제시한다.

〈바다출판사·2만50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